

## 브라질 동포간담회

반갑다. 정말 반갑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참 자랑스럽다'. 그리고 제 스스로는 자신감이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만난 동포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카자흐스탄, 러시아, 인도, 베트남을 들르고 이번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까지 왔습니다. 내일 칠레로 갑니다. 오는 길에 로스앤젤레스도 들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동포들이 모두 성공하고 또 그 사회에서 훌륭하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정받고 나아가 존경받고 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바 음악하고 함께 결합해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브라질리아에서 톨라 대통령, 동행한 우리 각료들, 기업인들과 함께 저녁을 했습니다. 공식 만찬이었습니다. 마치고 난 뒤 조그마한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 때 삼바를 연주하는 조그마한 악단과 한국의 '황윤제 예술단'이 협연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거 굿거리 장단이요" 얘기하고 "그 다음 가락은 모르겠다"며 제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황 단장을 만나 아는 척 하느라 “마지막 한국장단 기가 막혔다. 저 친구들이 언제 배웠느냐“고 하니까 황 단장이 “대통령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삼바 장단을 배운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머쓱했으나 얼마나 놀랍나. 브라질 사회 상파울루에서 한국의 전통 예술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게다가 삼바 음악하고 함께 결합해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통문화를 아끼고 보존하지만, 세계 역사에서 문화는 서로 만나면서 새롭고 다양하게 발전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이미 브라질에 한국문화가 와서 자리를 잡고 브라질 문화와 서로 교류하고 어떤 합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 좀 더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끈질긴 민족'으로만 생각했는데 '대단히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민족'이라는 생각을 추가했습니다.

### 한국은 잘 못될라고 해도 참 잘못되기 어려운 나라구나

러시아에서는 한국상품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일본 등 선진국 상품이 차지한 자리를 한국상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한국제 텔레비전을 보고, 한국제 레인지에 밥해 먹고, 한국제 자동차 타고, 한국제 전화기로 연락하고.... 러시아 기업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덕분에 산다“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국기업이 현지에 정착해 한국기업인지 인도기업인지 분간이 안가도록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동화되고 사랑받으면서 열심히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은 잘 못될라고 해도 참 잘못되기 어려운 나라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고민이 많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

나, 제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 국가의 큰 낭패가 될 만한 잘못된 일이 없으면, 줄여서 대통령 하고 있는 동안 큰 사고 안쳤으면,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없었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걱정이 이제 많이 해소됩니다. 해외에 나와서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고, 가는 곳마다 동포들을 만나서 사는 모습,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좀 시원찮아도 우리 국민이 충분히 잘 해내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물론 제가 시원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문내지 마십시오.(웃음)

**한국의 선거문화, 선거수준,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수준 모두 합쳐서 현재 우리가 하는 정치수준은 어디에 내놔도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일류상품전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길게 하지 말고 질문 받지 말고, 꼭 시간 맞춰 가야 한다'고 다짐을 많이 받아놓아서 제가 로스앤젤레스나, 아르헨티나에서처럼 충분히 얘기를 못 나누지만, 얘기 오래 못해 아쉽지만 정말 자랑스럽고, 브라질에 와서 한국이 성공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인 교육열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한국이, 국민이 역량을 키웠고, 그것이 한국 발전의 가장 큰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도 잘했다고 하고 싶을 것입니다. 가만 돌이켜보면 지난 40년 간 경제가 100배 성장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정치만 좀 잘하면 문제없겠다고 말하겠지만 정치도 가만 보면 해방이 45년이니까, 아직 60년이 안됐습니다. 나라 세운 것은 48년이니까 60년이 안됐습니다.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제 잘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박수) 얼른 낚득이 안가서 박수를 안치는 분도 계신데(웃음) 국회가 좀 시끄럽죠. 시끄럽지만 한국의 선거문화, 선거수

준,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수준 모두 합쳐서 현재 우리가 하는 정치수준은 어디에 내놔도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싸우죠. 지난번 국회 13일 간 헛바퀴만 돌렸지만, 옛날 습관이 남아서 좀 그런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기관의 중립입니다. 지금 중립해야 할 국가기관이 완전히 중립하고 있습니다. 군, 경찰, 정보기관, 검찰 다 중립하고 있습니다. 독립해야 할 기관은 확실히 독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위원회, 한국은행, 감사원 등이 독립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치주의 수준을 얘기할 때 한국 법치주의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 **국민의 교육열, 성공의지 이런 것이 발전의 동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한국이 발전한 이유를, 브라질에서 새삼 깨달은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 교육열, 성공의지 이런 것이 발전의 동력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독재와도 정경유착하고 기업들은 반칙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국민들이 훌륭해서 오늘을 이뤘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기업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국기업도 물론 독재정부 시절에는 권력과 결탁하고 권력의 특혜를 받기도 하고 금융상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서 권력의 힘을 빌려 노동자를 탄압해 노동자와 갈등을 빚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기업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이익을 모두 한국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금을 사서 어디에 감추지도 않았고, 해외 친척집에 숨기지도 않았고, 비밀계좌를 두지도 않고 전부 국내에서 기업활동에 재투자했습니다. 지금도 서로 노사 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경제를 성장시켜온 것은 이 같은 우리 기업의 애국심, 확실한 한국기업의 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업에 대해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디가도 칭찬하고 합니다.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에 최종 승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가입되면 약 150억불이 넘는 남미지역의 건설 중심의 투자시장,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장,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제 국내 무대가 좁아서 해외로 나갑니다. 이는 도피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활발히 나가야 합니다. 브라질에도 많은 기업이 나와 있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한국기업에 대해서 또 한번 확실히 애정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 주십시오.(박수) 감사합니다.

몇 년 동안 브라질과 한국의 관계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했다가보다 기업이 열심히 하고 각료들이 준비했고 제가 와서 마무리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동포사회에 수많은 언론이 있어 이미 보도를 봤지 않을까 생각해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철강, 동, 석유, IT 등등에서 많은 약속이 맺어졌고, 앞으로 IT 협력센터가 브라질에 마련되고,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분야의 한국기업인과 공무원들이 함께 브라질 경제 진출과 협력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할 것입니다. 아마 그 이전에 브라질이 한국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에 최종 승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가입되면 약 150억불이 넘는 남미지역의 건설 중심의 투자시장,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장,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대개 한국이 세계은행에는 2.6% 정도 조달하고 있는데 그 정도 비율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과 브라질의 교류가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 김철언 한인회장이 항공편 문제를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조국과 줄이 끊어지는 듯한 고립감 느낀다고 하는데 항공사의 사정을 들으면 '손님이 있어야, 비행기가 기름 떴고

다닐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곧 항공편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박수) 대통령이 명령해서 항공편이 들어가는 시대는 아닙니다.(웃음) 그러나 대통령도 한몫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왔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대통령이 오니까 무척 좋아합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한번 노력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양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보면 저도 한몫 하는 셈이죠.(박수)

지금 대체로 순방활동을 하면서 우리 장관들이나 참모들과 약간의 호흡이 맞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순방결과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므로 생색내지 말자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갔다 오면 TV 앞에서 국민에게 보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왜 생색이냐”라고 참모들이 말하지만, 대체로 대통령이 성과라고 내놓는 제목들을 훑어보면 기업들이 핵심적으로 한 것이고, 대통령은 그냥 뒤에 가서 밥 짓는데 부채질 한번 해준 수준 아니겠습니까. 제 자랑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옛날로 치면 이번에 가서 국민에게 자랑할 보따리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자랑할 보따리가 한 보따리입니다.(박수) 그래서 아마 항공편도 곧 복원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박수)

**정부는 항상 민간인 모금과 나란히 지원하도록 돼 있어 여러분 모금 속도에 맞춰 지원할 모양입니다**

한국학교 소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좀 더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는 항상 민간인 모금과 나란히 지원하도록 돼 있어 여러분 모금 속도에 맞춰 지원할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애쓴 만큼 여러분이 서운하지 않게 돌아가서 다시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같은 훌륭한 학교건립에 임두를 낸 것만 해도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그만큼 성취한 것만 해도 정말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함께 협력해서 마무리를 잘 해봅시다. (박수)

이제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언 회장, 조중현 회장이 비 오는데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줬습니다. 특히 두 분 회장 부인께서는 우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오셔서 가슴 짱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봅시다. 한국도 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앞으로 잘 할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매년 사고 쳤다고 표현하지만, 대통령마다 다 한두 가지 훌륭한 업적이 있고, 또 한두 가지 큰 실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제가 어려웠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실적은 다른 대통령만큼, 최대한 더 많이 내겠습니다. 그러나 실수, 실책은 전직 대통령 여러분이 한 것들을 보았으므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다시 큰 홍역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서 경제가 반드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박수) 여러분 또 다시 뵈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